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1년 12월 21일 화요일 (음 11월 18일) 제2925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지방정책 컨트롤타워 수장 되다

송하진 도지사, 민주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공동위원장에 선임

중앙정치·지방행정
정책적 입지 견고해질 듯

이개호 의원과 공동선임
정치인-행정이 투톱 완성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최고위원회를 개최하고, 송하진 도지사를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하기로 민정일치로 의결했다. 사진은 송영길 당대표와 악수를 하고 있는 송 지사의 모습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의 지방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컨트롤타워의 수장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최고위원회를 개최하고 송 지사를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하기로 민정일치로 의결했다. (관련기사3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기도 한 송하진 도지사는 이번 공동위원장 선임으로 지방행정과 중앙정치 양쪽 모두에서 지방정책을 결정하는 주도적 역할을 맡게 됐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에 관련한 송 지사의 정치적·정책적 입지와 영향력이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지방분권형 개헌과 국가균형발전 의제의 구체적인 실천방안 마련,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협력 강화 및 지원확대, 관리 등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10년 출범시킨 당내 상설기구이다.

그간, 역대 위원장은 김진표, 원혜영, 신기남, 박영선, 김두관, 홍영표 의원 등이 맡았다.

위원회에는 당 소속 시·도지사를 비롯해 자치구 시·군의 장, 시·도의원, 자치구 시·군의원, 시·도당 자치분권위원장, 상임위원 및 정책자문위원 등이 참여하며, 자치분권과 관련된 주요 사업을 심의 의결하고, 정책 자문 등을 처리한다.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송하진 전북도지사의 공동위원장 선임에 대해 '대한민국의 진정한 분권 시대를 열기'라는 평가를 받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특히, 송영길 당 대표는 신임 공동위원장 선임에 최고위원회에서 통과시킬 정도로 큰 관심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송 지사 선임은 40년 지방행정가로서 송 지사의 경험과 역량이 지방분권의 실질적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사상 최초 연임 시도지사협의회회장으로서 송 지사가 지방정부와의 소통과 협업을 이끌 적격자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0월 이개호 국회의원의 위원장 임명에 이어 이번 송 지사의 공동위원장 선임으로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을 이끌 '정치인-행정' 투톱 체제를 완성했다.

이로써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협력적 동반자로 정착시키고, 실질적 자치분권을 실현하겠다는 국정 목표를 정치와 지방행정 양측에서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송하진 도지사는 공직생활과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지방정부 단체장을 역임하면서 지방행정에 대한 깊은 이해

와 네트워크를 갖겠다는 평을 듣는다. 공직자 시절에는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교부세과장, 지방분권지원단장을 역임하며, 지방재정과 지방분권의 기틀을 만드는 데 힘썼다.

박사논문으로 보완해 발간한 '정책성공과 실패의 대위법(공저자 김영평)'으로 자치단체장 최초 한국정책학회 학술상을 수상하는 등 정책에 대한 학문적 이해도 깊다.

지난 2020년 역대 전북도지사로는 처음으로 17개 시도광역자치단체장 회의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의 회장으로 선출됐고, 2021년 사상 최초로 연임회장을 맡는 기록을 세웠다.

또한 지방분권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추진력으로 송 지사의 강점으로 꼽힌다.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김부겸 국무총리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한 제9회 지방자치의 날에는 '가칭'제2차 지방일자리양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송 지사는 지방분권의 첫 단추를 중앙과 지방과의 수평적 관계 형성에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후속 조치의 지방의 지혜와 역량을 모으고 있다.

이율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고무시키는 데에도 노력 중이다.

특히, 재정격차 완화와 지방재정 확충은 송 지사의 큰 관심사로 이에 대한 대안 마련에도 나설 계획이다.

송하진 지사는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로서 지방의 바람과 열의를 확실히 전달하고, 지방분권과 지방위기 대응에 정치권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마스크 착용 '필수'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내년 도정 사자성어 '견인불발'

'어려운 상황 맞아도
굳세게 참아 목표 달성'
송 지사, 도정 운영 다짐

堅忍不拔

송하진 도지사가 "2022년은 기후 위기 대응과 친환경 스마트화로 생태문명산업 육성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2022년 도정운영 사자성어를 발표했다.

송 지사는 20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실국별 주요업무를 보고 받은 후 "먼저, 한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그동안의 청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모두가 하나되어 올 한해를 무사히 넘길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공직자는 코로나19 대응 등 숭선수범해 사직모임 및 타 지역 방문자제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끊임없이 긴장감을 갖고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제도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는 도민을 위해 전체를 바라보는 조감(鳥瞰)능력을 갖고 그 속에서는 균형감각을 키우고, 특히 도정의 기본 철학인 공심(公心)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 의미에서, 송하진 지사는 2022년 전북도정 다짐으로 '견인불발(堅忍不拔)' 사자성어를 발표했다.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전반의 양극화가 심화됐고 기후

위기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며, 탄소중립이 전세계의 화두가 되고 있다.

이에,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생태문명시대 전환에 대응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 방역에 최우선할 필요가 있으며, '경제체질개선·산업생태계 구축·자존의식고취' 도정 운영의 기본축을 일관되게 끊임없이 추진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2022년에는 코로나19, 기후 위기, 경기침체 등 어려운 위기가 지속돼도 건강하고 안전한 전북을 실현하고, 생태문명시대로의 전환에 앞장서기 위해 한걸음 한걸음 굳세게 나아가야 한다.

송하진 지사는 이런 의미에서 '코로나19, 기후변화 등 위기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해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견인불발(堅忍不拔)'을 2022년 도정운영을 위한 사자성어로 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송하진 도지사는 "안전하고 따뜻한 연말·연시 대책 강화를 지시했다. 송 지사는 "코로나 확산 및 거리두기 강화조치로 사각지대 발생이 우려된다"면서, "연말·연시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함께 노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안전확인 및 위문 등 따뜻한 정책을 더욱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새만금젼버리 공식캐릭터 확정

이름 '새버미'... 호랑이 의인화



젼버리 공식캐릭터의 이름은 '새버미'로 스카우트에서 강조하는 용감함을 상징하는 호랑이를 의인화했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젼버리조직위원회(공동위원장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 국회의원 김윤덕 이하 조직위원회)는 세계젼버리를 알리는 중요한 매개체이자, 참가한 청소년들의 친구가 될 공식 캐릭터를 발표했다.

이번 캐릭터 확정으로 새만금 젼버리의 얼굴이 될 공식 로고와 주제 및 캐릭터 등 젼버리의 상징물 개발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조직위원회는 이번에 발표한 캐릭터 기본형을 토대로 확장성과 활용성을 극대화한 캐릭터 응용형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